

시진핑 특사 내일 방북... 김정은 면담 예상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트럼프·시진핑 조율 의견 전달 6자 회담 참여 독려할 듯



양위원회 총서기 시진핑 동지의 특사로 쑹타오 동지가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쑹타오 부장은 당 대회가 끝난 뒤 지난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갖춰진 당 대회 내용을 소개한 바 있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방문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쑹 부장은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방중해 시 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구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일에는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6자 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도 회동한 이후 쑹 부장이 방북길에 올라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이에 따라 쑹 부장은 19차 당 대회 결과 설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방북해 북한 고위 지도층과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함께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

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단계적인 접근을 기초로 북핵 해법을 전명하며 미국과 한국, 북한에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다. 아울러 쑹 부장은 이번 방북 기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제재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북중 관계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쑹타오 부장이 방북 하리라는 것은 이미 베이징 외교가에서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 간다는 것은 미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북한과 본격 논의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흐 ‘들판의 농부’ 906억에 낙찰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들판의 농부’가 13일(현지시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130만 달러(약 906억원)에 낙찰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고흐 작품의 역대 최고 경매가인 8250만 달러(약 920억원)를 살짝 못 미치는 가격이다.



빈센트 반 고흐 ‘들판의 농부’

낙찰자는 미 억만장자 낸시 리 베스 와 페리 R. 베스 부부다. 크리스티는 이 작품에 대해 고흐가 1889년 프랑스 남부 생폴드모슬 수도원에서 요양할 당시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매에서는 페르낭 레제의 1913년 작품 ‘형태의 대비’도 7010만 달러(약 782억원)에 낙찰돼, 레제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까지 공격... 캘리포니아 시골 총기난사 5명 사망

40대 남성 이웃 다툼끝에 범행

미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서 총기난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의 한 시골마을 초등학교 등에서 1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총격범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이 총기와 다량의 탄환을 갖고 학교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형 잠사로 이어질 뻔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오전 8시께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레드 블러프 인근 란초 테헤마 마을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총격범이 마을을 옮겨 다니며 모두 7곳에서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총격범은 전투용 방탄조끼를 입고 여분의 탄창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총격범은 주택가에서 총을 쏘다가 인근 란초 테헤마 초등학교로 옮겨 학교 주변에서 다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범의 신원은 44세 케빈 캔슨 닐로 밝혀졌다고 지역지 새크라멘토비



위의 포옹 14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닝의 란초 테헤마 초등학교 앞에서 두 여성이 포옹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총격범이 주택가에서 총을 쏘다가 인근 란초 테헤마 초등학교로 옮겨 다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전했다. 총격범은 이웃 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이 주민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마 카운티 경찰서 필 존스톤 부보안관은 “이번 사건은 훨씬 더 악화할 뻔했다”면서 학교 직원들이 재빨리 교정을 봉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CNN 방송과 AP통신은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가 등교한 학생들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필사적으로 교실 문을 잠그는 등 학교 출입을 봉쇄해 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초등학교에서 최소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부상했다. 학생을 데려다주던 학부모 한 명도 총상을 당했다. 이 학부모는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마 카운티 경찰은 LA타임스에 “총격범이 마을을 이

리저리 옮겨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란초 테헤마는 인구 3500명의 작은 마을이다.

앞서 인구 수백 명에 불과한 텍사스 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지난 5일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데 이어 미국 전원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풍물이 아베 정권 “북 도발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5일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의사에 반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 도발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확실히 유지해 가겠다”며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장감을 갖고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등에 전력을 쏟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시히데 장관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을 발사한 이후 2개월째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2개월간 도발행위를 중단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해 북한이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블랙프라이데이’ 한국 화장품 선풍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중국의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할인 판매 행사에서 한국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군제 행사 기간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을 통한 한국 관련 제품의 총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늘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광군제 기간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톱 10 브랜드는 A.H.C, 제이준, SNP, 후(The History of Whoo), 파파라시피, 리더스, 샹프리, 클리오, 설화수, 이니스프리 순으로 대부분 화장품이었다.

구체적인 제품별로 보면 광군제 기간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아이 크림 등 아이케어 제품, BB크림, 로션, 페이스 클린저, 파운데이션, 토너·스킨, 에센스, 생리대, 메이크업 리무버가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한국 제품인 화장품이 광군제 기간 중국인 소비자들의 판매 욕구를 일으켰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전반적인 한국 상품 구매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